

중국출장 결과보고(중국 귀주성 귀양시)

보고자: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박경철 책임연구원 등 3인

I. 출장 개요

1. 방문 목적

- 제3회 동아시아지방정부 3농포럼 참석(발표, 현장 견학 등)
- 우리 연구원-귀주성사회과학원 학술교류협약식 체결 및 기념 세미나 참석

※ 방문 경위 및 세부 목적

- 충청남도과 귀주성은 2016년 11월 충남도청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방정부가 교류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음.
- 충남도는 귀주성정부에 충남도가 2015년도에 개최한 <동아시아지방정부 3농포럼>의 경험을 소개하고 농업지역인 귀주성에서 올해 개최할 것을 건의해 이번 행사가 이뤄지게 됨.
- 이번 행사에 충남도청에서는 안희정 도지사, 허승욱 정무부지사 등 농업 관련 공무원, 농민 대표, 전문가 등 약 30명 참석
- 우리 연구원은 이번 행사에 적극 참가해 농업유산(금산인삼) 등에 관한 학술발표 실시
- 또한 귀주성의 싱크탱크인 귀주성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세미나 진행

2. 방문 기간, 방문지, 방문단 구성

- 방문기간: 2017년 9월 16일(토)~20일(수)(4박5일)
- 방문지: 중국 귀주성(貴州省) 귀양시(貴陽市)
- 방문자: 강현수 원장 외 3인(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센터장, 박경철 중국연구팀장, 유학열 농촌농업연구부 박사)
- ※ 충남도 방문단: 안희정 지사 외 약 30명(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참석)

3. 주요 일정

일차	월/일	시 간	내 용	비고
1일	9월 16일 (토)	12:55→13:55 16:35→19:25	인천 → 상하이(MU5042) → 귀양(MU 2369) 귀양공항 → 숙소	귀양시 숙박
2일	9월 17일 (일)	09:00→12:30 13:30→16:30	오전: 제3회 동아시아지방정부 3농포럼 개막행사 오후: 제3회 동아시아지방정부 3농포럼 세션별 행사	귀양시 숙박
3일	9월 18일 (월)	9:00→12:00 13:00→17:00	오전: 귀주성 생태농업시범기지 등 시찰 오후: 귀주성 생태농업시범기지 등 시찰	귀양시 숙박
4일	9월 19일 (화)	9:30→12:00 14:00→18:00	오전: 충남연·귀주성사과원 MO체결 및 기념세미나 오후: 귀주성사회과학원 연구시설 견학 및 귀국준비	귀양시 숙박
5일	9월 20일 (수)	07:00→09:45 12:15→15:20	귀양 → 상하이(MU9460) 상하이 → 인천(MU5033)	귀국

II. 주요 활동 내용

1. 2017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9월 16-17일)

1) 개막식 및 전체 회의

○ 개요

- 시간: 2017년 9월 17일 09:30-12:30
- 장소: 귀양신세계호텔 대회의실
- 주제: 산지농업 녹색나눔
- 주요 참석자 및 기관:

<한국측> 충남도 안희정 도지사, 허승욱 정무부지사, 박병희 농정국장, 김호 3농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도 관계자,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등 연구원, 세종시, 전라남도, 한국총영사관, 한중문화우호협회, 한중일우호협력사무국, 농협중앙회 해외협력국 등 50여 명

<중국측> 귀주성 선이친(譚貽琴) 대리성장, 쑨즈강(孫志剛) 당서기(전야 만찬), 중국 외교부와 중국인민대회 우호협회, 세계식량농업조직 중국농업부 관계자 등 210명

<일본측> 시즈오카현과 시가현, 일본경제산업국, 일본충청총영사관, 일본자치협회 관계자 등 40여 명

○ 주요 일정(전체)

구 분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일차 (9.16)			오후 회의 등록 회의 참가자는 2017 중국귀양 국제특색농산물교역회 시찰	귀주성
	18:30~19:30	60'	귀주성 환영 만찬	
2일차 (9.17)	09:00~09:30	30'	귀주성 고위층, 국내외 참석자 대표 접견	
	09:30~12:30	180'	개막식 및 전체회의 흐름 : 1. 분위기 형성을 위한 홍보물 방영, 사회자가 주빈 소개 2. 귀주성 고위층 축하 및 개막 선포 3. 한일 우호 성도 고위층 축하 4. 기조 보고 5. 한중일 지방정부 농업교류 합작 시스템 선포식	

			6. 티타임 7. 전문강좌
	12:30~13:30	60'	오찬
	14:00~16:30	150'	포럼은 3개 주제로 연구 토론이 진행 섹션1 : 글로벌 농업문화유산보호계승 및 개발 이용 섹션2 : 합작경제+전자상거래 발전 섹션3 : 과학기술서비스 3농학술
3일차 (9.18)			귀주성 생태농업시범기지 시찰(외빈) 코스1 : 귀양시 슈우원현, 현대생태농업-키위산업재배기지 코스2 : 쭈이시 화마오촌, 현대고효율농업단지 시찰, 혁신산업거리, 향촌민박, 농촌건설 코스3 : 치안둥난주 충지양현, 글로벌농업문화유산의 동족 벼 물고기 오리 복합시스템

○ 발표자 및 발표 내용

□ 안희정 충남도지사

- 충남도의 3농혁신은 농민을 농업정책의 주인으로 나서 농민들 주도로 생산, 유통, 환경 개선을 실행해나가는 사업임. 한중일 3국은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 등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는 유사함. 따라서 3국이 협력해 동아시아 공동의 문제인 3농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자. 가장 오래, 가장 멀리 가고자 한다면 지금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에 주목해야 함.

□ 선이친 귀중성 대리성장

- 충남도가 2015년 제안해 시작된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은 멀리 내다보는 탁월한 식견이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함. 귀주성은 산지농업과 관광농업이 발전해 있지만 한국과 일본만큼 앞서나가지 못함. 따라서 이런 포럼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경험을 통해 귀주성의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자 함.



선이친 귀주성 대리성장 환영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기조 강연



대회 개막 선포



김호 충남도3농혁신위원장 발표

[그림 1] 기념행사 및 주제 강연

2) 제1세션 발표 및 토론 내용(우리 연구원 참가 세션)

○ 개요

- 시간: 2017년 9월 17일 14:00-16:39
- 장소: 귀양신세계호텔 2층 예랑(藝廊) 5+6+7실
- 주제: 세계 중요 농업문화유산 보호 계승과 발전

○ 발표자 및 발표 내용

□ FAO 주중국대표 빈센터 마틴(Vincent Martin)

- 현재 FAO에서는 세계 중요 농업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증과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중요 농업문화유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높음. 유구한 역사를 통해 전승되어 온 농업문화유산을 후대에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귀주성 농업위원회 부주임 샤오룽진(肖榮軍)

- 귀주성은 전체 면적의 92%가 산지인구는 3,500백만 명임. 그 가운데 농촌인구는 55.8%임. 농경지는 많지 않으나 감자, 고추, 채소, 차, 중약재, 잡곡 등이 많이 생산됨. 감자 생산량은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음. 귀주성은 산지

농업이 발전한 지역이고 역사적으로 발달되어온 다랭이논이 세계 중요 농업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전 사회가 이를 지키는 데 노력하고 있음.

□ 일본 농림수산물협회 비서장 유존엄(劉尊嚴)

- 일본의 농업문화유산은 주로 벼와 관련된 것이 많음.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벼 재배 문화는 중국의 남쪽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남방 문화와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농업문화를 연계해 향후 교류 협력해 나가길 희망함.

□ 한국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유학열

- 현재 한국에는 세계 중요 농업문화유산이 2곳이 있고 한국 중요 농업문화유산은 7곳이 있음. 금산인삼 농업문화유산 한국 중요 농업문화유산이면서 현재 FAO 세계 중요 농업문화유산 신청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 금산인삼은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물, 바람, 태양, 온도, 습도 등을 전통적 지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활용한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문화유산임.

□ 귀주성 총장(從江)현인민정부 현장 창투강(長涂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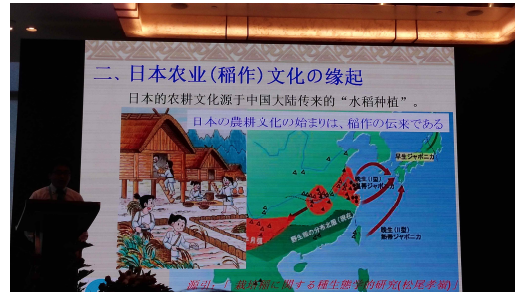
- 총장현에 소재하고 있는 다랭이논과 벼+물고기+오리 공생농업은 중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농업문화유산임. 전국시대 때부터 이곳에 터를 잡은 묘족들이 산지에 벼를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오랜 전통지식을 활용해 물고기와 오리 농업을 창안해 현재 계승되어 오고 있음. 2011년에 세계 중요 농업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부대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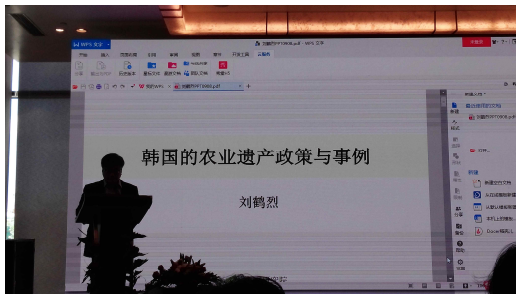
1. 치엔둥남주(黔東南州) 농업위원회 책임자 치엔둥남주 벼+물고기+오리연맹 성립 선포
2. 총장현 현장 《총장창의-從江倡義》선포
3. 총장현 현장 중국과학원 민칭원(閔慶文) 교수 및 연구원에게 명예현민 증서 수여
4. 청장현 벼+물고기+오리 로고 공개
5. 종합토론
 - 주요 내용: 농업문화유산은 등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함.
6. 발표자 및 주요 내빈 기념 촬영
7. 폐회



제1세션 개회



일본의 도작 문화 발표



유학열 박사의 한국농업유산정책 및 사례 발표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그림 2] 제1세션 주제 발표

3) 현지시찰: 귀주성 총장(從江)현 벼+물고기+오리 공생농업지구(다랑이논)

○ 소개

- 귀주성 성도인 귀양시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서남쪽으로 2시간여 시간을 가면 총장 현이 나옴.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 정도 산악지대로 들어가면 다랑이논 지구가 나오는데 이곳은 벼+물고기+오리 공생농업시스템으로 중국 내에서 대표적 농업문화유산이자 세계 중요 농업문화유산(2011)이기도 함.
- 이곳은 전국시대 때부터 이곳에 터를 잡은 묘족들이 산지에 벼를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오랜 전통지식을 활용해 물고기와 오리 농업을 창안해 현재 계승되어 오고 있음. 다랑이논의 길이는 무려 11km에 이를 정도로 중국 최대의 다랑이논 지구임.
- 중국정부는 총장현 다랑이논일대를 정책적으로 보존하는 한편 이러한 지역의 농업 문화유산을 향촌관광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번 시찰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온 기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지역 다랑이논의 적극 홍보하기도 함.

○ 현장 사진



[그림 3] 총장현 벼+물고기+오리 공생농업의 다랑이논



[그림 4] 다랑이논과 전통농업 활동

2. 우리 연구원-귀주성사회과학원 학술교류 협약 및 기념세미나

○ 행사 개요

- 일시: 2017년 9월 19일 9:30-12:00
- 장소: 귀주성사회과학원 2층 제1회의실
- 참석: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외 3인, 귀주성사회과학원 우따화(吳大華) 원장 외 10인

○ 행사 일정

시 간	소 요	내 용
09:30~10:00	30'	충남연구원-귀주성사회과학원 간 학술교류 협약식 체결 - 우따화 귀주성사회과학원장 환영사 - 강현수 충남연구원원장 답사 - 차담
10:00~12:00	120'	기념세미나 - 충남연: 충남도 3농혁신, 농업유산, 마을만들기 소개 - 귀주성사과학원: 향촌건설, 생태관광농업 등 소개
12:00~14:00	120'	환영 오찬 및 휴식

○ 귀주성사회과학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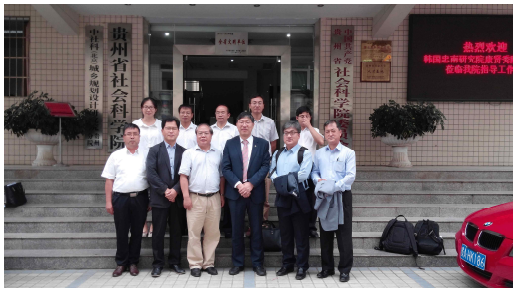
- 중국과학원 귀주분원 철학사회과학연구소 1959년 성립(전신), 1962년 폐쇄
- 1978년 중공귀주성위 3월 철학사회과학연구소 재성립, 1979년 2월 귀주성사회과학원으로 개칭
- 연구 분야: 문화, 역사, 철학, 경제, 도시경제, 농촌발전, 사회학, 법학(민상법연구중심), 서부개발
- 인력: 전체 직원 171명, 연구인력 132명
- 연구조직: 구역경제연구소, 도시경제연구소, 농촌발전연구소, 서부개발연구소, 역사연구소, 사회연구소, 민족연구소, 문화연구소, 법률연구소, 당건연구소
- 부설 센터: 귀주성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연구센터 귀주성사회과학원 연구기지, 귀주문화산업연구센터, 귀주성민족문화연구센터, 귀주화해사회건설연구센터

○ 우따화(吳大華) 원장 소개(*당서기 진안장, 金安江)

- 직위 및 학력: 당위원회 부서기, 법학박사. 화남이공대학, 운남대학, 귀주민족대학, 귀주사범대학박사생 지도
- 전공: 형법학, 민족법학(법률인류학), 범죄학, 순환경제
- 경력: 귀주민족학원 법률계 주임, 부원장, 귀주성교육청 부청장, 귀주민족학원 원장, 당부서기, 2010년 귀주성사회과학원 원장, 당부서기

○ 학술교류 내용

- 우리 연구원 강현수 원장과 귀주성사회과학원 우따화 원장은 학술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 관광, 농업, 빅데이터 등에 관한 교류 추진에 합의함.
- 협약체결에서 우따화 원장은 귀주성은 소수민족이 많고 산간지대가 많아 낙후한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지의 자원 활용과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의 결합, 그리고 도로, 통신 등 인프라시설의 확충으로 중국 33개 성급 지역에서 3번째로 경제 발전 속도가 빠른 지역이라고 설명함. 하지만 여전히 농촌지역은 낙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학습해 귀주성 농촌에 확대하고 함.
- 강현수 원장은 귀주성에 와서 귀주성뿐만 아니라 중국의 발전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향후 양 지역 간 경제, 관광, 농촌, 빅데이터 분야 등에서 교류 협력 추진을 희망함. 특히 충남은 3농혁신을 통해 마을만들기, 로컬푸드 등 다양한 정책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귀주성사회과학원에서 이러한 분야의 교류 추진시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함.
- 협약식 이후 기념세미나에서 충남연구원 구자인 마을만들기센터장은 충남도 마을만들기 사례에 관해 발표했고, 유학열 박사는 한국의 농업유산의 현황과 농촌개발에 관해 발표함. 귀주성사회과학원에서는 귀주성 경제의 현황과 이슈, 그리고 삼농문제와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소개함.



[그림 5] 충남연구원-귀주성사회과학원 교류 협약 및 기념세미나

Ⅲ. 전체 평가 및 과제

1. 귀주성 정부에서 주관한 제3회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은 2015년 충남도가 처음 개최한 이후 지난해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개최하고 올해 귀주성에서 개최해 명실공히 한중일 지방정부의 최대 농업관련 행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행사였음. 2018년에 다시 충남도에서 제4회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이 개최될 예정임. 따라서 이번 행사가 향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2. 이번 행사는 당초 충남도 안희정 지사와 귀주성 천민얼 당서기가 협약해 개최키로 했으나 행사를 앞두고 천민얼 당서기가 충칭시 당서기로 이동하면서 이 행사 개최가 한때 불투명하기도 했음. 하지만 귀주성정부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준비를 해줘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침.
3. 기념행사와 학술행사에 이어 3종류의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준비해 행사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중국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음. 특히 우리 연구원이 참가한 세계 농업문화유산지구인 총장현 벼+물고기+오리 공생농업시스템의 다랑이논지구의 현장 견학을 통해 중국의 전통농업과 농촌의 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4. 우리 연구원은 이번에 중국 지방정부의 사회과학원 가운데 운남성, 하북성, 흑룡강성에 이어 네 번째로 귀주성사회과학원과 정식으로 협약을 맺고 세미나를 개최함. 귀주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됐지만 소수민족이 많아 문화적 다양성이 강하고 향촌관광이 발달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등이 개발이 되어 중국내에서도 주목을 받는 지역임.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양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귀주성사회과학원에서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에 관심이 많아 이 분야에 대한 상호 학술교류를 실시한다면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됨.